

지역 매아리

정읍 한우농가, 지난해 이어 보증씨수수 선발 영예 '쾌거'

정읍한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우 보증씨수수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칠보면 와우한우농장 대표 이동화(38) 씨의 후보 씨수수 2마리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발하는 올해 상반기 한우 씨수수(KFN 1272, KFN 1273)로 당당히 선발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 씨의 농장을 포함한 2개 농가에서 한우 보증씨수수 2마리(KFN 1255, KFN 1256)가 선발된 바 있다.

14년간 한우를 사육해 오고 있는 이동화 씨는 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5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한우 보증씨수수(KFN / Korean proven bull's number)는 대한민국 수소를 대표해 전국 번식 암소를 대상으로 장악을 공급하는 중모우를 말한다. 매년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는 전국 한우육종농가 후보 씨수수 중에서 한우 능력검정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엄선 확정한다. 전국에 분포된 수소 중에서 보증씨수수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9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올해 8월부터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전국 한우농가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정읍시 한우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 씨수소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선영이네 김치공장 준공

묵은지 등 김치 가공·판매 본격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진서면에 소재한 (주)선영이네 김치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김치 가공·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선영이네 김치공장은 450㎡의 제조시설에서 연간 300톤의 묵은지 등을 가공하며 HACCP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유통업소 및 단체 등에 위생적인 김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국의 김치는 K-팝과 더불어 전세계 68개국에 수출하는 인기있는 글로벌 푸드로서 세계에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김치를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와 천년의숨겨진 쌀 지은 한식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협조·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수급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균특·국가예산 확보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각종 현안사업 철저 대응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없도록 도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소통해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최근 태풍과 해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침식과 거주지역 침수, 기반시설 훼손 등

연안지역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연안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격포해수욕장 및 위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해안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내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4회 북미 스카우트잼버리 참가를 위한 부안군 대표단이 출국했다. 북미 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면 바로 2023년 제25회 부안 스카우트잼버리로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부안의 글로벌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부안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봄 싱그러움 초록빛의 물결로 넘실거렸던 고창학원농장이 오색 빛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100일간의 꽃잔치, 인생사진은 바로 여기!

고창 학원농장, 해바라기 시작으로 코스모스·메밀꽃·백일홍 일제히 개화

여름꽃은 단연 셋노란 해바라기다. 햇빛이 내리쬐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해바라기 꽃이 수만방 꽃밭에 만개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노란색 물결을 이루는 해바라기 꽃밭에서 예쁜 추억을 만든다.

지난 봄 싱그러움 초록빛의 물결로 넘실거렸던 고창학원농장이 오색 빛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100일간(10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창 학원농장 꽃잔치'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메밀꽃이

20만평의 구릉지에서 피고 지고 반복한다.

해바라기와 메밀꽃은 개화 절정기가 보름 정도다. 이에 학원농장은 개화시기를 7개 구역별로 조정했다.

또 백일홍과 코스모스는 피고 지고 반복해 100일 동안 계속 꽃을 이어 볼 수 있도록 했다.

꽃잔치 기간에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언제나 2~3만명 규모에서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학원농장은 여름철 인기

피서지인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상하농원, 선운산 등과 인접해 있어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 학원농장 진영호 대표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수많은 꽃들이 자아내는 장관 덕분에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그늘막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꽃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해야”

이용남 부안군의원, 미세먼지 예방·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안군의회 이용남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안군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 이용남 의원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부안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협요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 누구나 재난·사고로부터 보상 가능’

김연식 부안군의원,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동진·백산·주산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부안군에서는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될 예정이며, 모든 부안군민은 별도 조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이며,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제8대 부안군의회 유일하게 무소속 의원인 김연식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계속해서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생활 향상 도모

정읍시가 시내 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배관 설치에 나섰다.

관련해 시는 지난 2004년 시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93%)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주민들의 시설 설치비 부담이 커 도시가스 공급율(48%)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5억1천200만원 을 들여 5개 지역 총 1.3km 구간에 대해 공급배관을 설치한다.

9월까지 △연지동 실내체육관~여성문화회관(195m) △상교동 용흥교차로~도솔안방량(190m) △내장상동 명동한흥면옥~샘고을교회(190m) △초이스노래방~전라토건(240m) △시기동

정읍읍육원~대성하이퍼마켓(510m)에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독주택 미공급지역의 주민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낮은 설치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년 기반시설을 확충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대상인 시기동 2동~6동 지역 136세대와 연지동 10~11동 지역 15세대에 대해서 11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